

「죽은 사람들」: 죽음, 재생, 그리고 여성

김 문 숙

I

「죽은 사람들」(“The Dead”)은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앞선 열 네 편의 단편들과 연속성과 차별성을 모두 보이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마비로 상징되는 죽음의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동시에 소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죽은 사람들」의 게이브리얼 콘로이(Gabriel Conroy)가 월출(Florence L. Walzl)의 지적처럼 “전형적인 더블린 사람”(Walzl 437)이면서도 재생의 기미를 보이는 긍정적인 인물로 재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원래의 기획에 덧붙여진 코다(終曲)¹⁾로서의 「죽은 사람들」은 이렇듯 앞선 단편들이 천착

-
- 1) 조이스가 1906년 5월 5일자 편지에서 밝힌 대로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을 여는 1906년도 판 『더블린 사람들』은 4단계의 이야기로 비교적 완벽하게 균형을 갖춘 작품집이었다. 이것은 작품을 여는 3편의 유년기의 이야기, 청년기를 다룬 4편의 이야기, 역시 4편으로 구성된 성년기의 인물들을 다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 삶을 다룬 3편의 이야기로 3-4-4-3의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 작품집의 중심적인 이미지로서 이들의 삶에 배어있는 마비의 증후는 유년기의 환멸, 청년기의 좌절, 성년기의 수동성과 비생산성 그리고 공적 삶에서 드러난 삶의 정지 상태의 형상으로 변주되어 재현되었다. 그러나 1906년도 판이 출판업자와의 갈등으로 그 출판이 지연되다가 1914년 세상에 나왔을 때, 원래의 기획에 부가된 「죽은 사람들」이 이 작품집의 새로운

한 마비의 증후를 총괄할 뿐더러 소생의 가능성도 타진하는, 말하자면 진단과 처방의 양 측면을 모두 보여주면서 『더블린 사람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죽은 사람들」의 무대인 모컨(Morkan) 자매의 연례 무도회는 『더블린 사람들』의 암울한 상황과는 얼핏 대조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성한 먹거리와 그들이 주고받는 무수한 말들에 이 어두움이 잠시 가려 있음이 차츰 밝혀지게 된다. 단적인 예로, 죽음을 목전에 둔 모컨 자매의 “오그라든 빨간 사과처럼 온통 주름살 투성이”의 외모라든지, 메리 제인(Mary Jane)의 기계적인 피아노 연주와 그 연주에 대한 젊은이들의 위선적인 반응, 그리고 브라운씨(Mr Brown)의 무의미한 발언 등 죽음과 상응되는 마비의 그림자는 작품 곳곳에 그 선명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식 및 직업 등에서 위의 인물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게이브리엘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전형적인 더블린 사람”에 지나지 않음이 그의 속물성을 꿰뚫어보는 여러 여성들과의 갈등을 통해 날낱이 밝혀진다.

앞선 단편들에 비해 「죽은 사람들」이 지닌 차별성은 이처럼 여성인물의 빈도와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여성 중에는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그 허점과 허구성을 들추어내려는 체제 저항적인 성향의 인물도 등장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던 「진흙」(“Clay”)의 마리아(Maria)나 「이블린」(“Eveline”)의 이블린과는 달리 남성중심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 그리고 부부의 문제에까지 그 저항의 울림을 분명하게 새겨 넣는다. 이들 여성은 남성 주인공의 단편진 의식 세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마비를 초래한 원인을 밝혀내고 갇혀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게이브리엘은 자신이 갇옷처럼 걸치고 있던 가부장으로서의 우월감이 한갓 허구에 불과했던 것임을 이들 여성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곧 타자에 대한 발견과 인정, 위계적 인간관계의 재고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비전의 탄생을 예감케 한다.

남성중심의 지배구도에서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것은 주변으로 밀려나 있지만, 체제 또는 계급간의 엄격한 경계선을 물 흐르듯 넘나드는 자유로움으로 그 경직

결론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율리시스』에서 17장으로 작품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일종의 코드 스토리인 18장의 「페넬로페」에서 앞선 17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몰리 블룸의 의식을 통하여 새롭게 반추하면서 결론에 다가가는 구성과 유사한 형식이다.

된 구분을 교란시키며 열린 체계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말하자면 타자로서의 여성의 조건 자체가 지배문화를 비판적으로 응시하면서 삶의 개방성, 복수성, 그리고 다양성을 지향하는 하나의 존재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표현을 빌면 성(gender)의 개념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서 “성 정체성의 그 분명한 불안정함과 모호함을 자신과 일치하는 본질로 난폭하게 고착시킨 것”(Eagleton 23에서 재인용)에 불과하다. “‘아일랜드’라는 ‘개념’ 역시 영국 역사에 있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영국 지배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허구”(Cairns and Richards 9에서 재인용)일 뿐이라는 카이버드(Declan Kiberd)의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다. 커모드(Kermode)의 지적처럼 “허구는 그것의 허구성이 의식적으로 주장되지 않으면 신화로 변질되어 버릴 소지를 늘 안고 있는 것”(Cairns and Richards 11에서 재인용)이라면, 자신의 작품이 민족의 “마비된 영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잘 닦여진 거울”로 기능하여 “영혼의 해방”을 도모하고자 했던 조이스(James Joyce)의 의도는 게이브리얼의 “마비된 영혼”을 ‘보여주면서’ ‘남성/제국의 우월성의 신화’를 흔들어놓는 이들 유동적인 여성들을 통해 제시된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사회주의 예술가의 입장(SL 61)으로 설명해 왔던 조이스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였던 페레로(Gugilelmo Ferrero 1871-1942)의 글에서 정치적 지배와 성적 지배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페레로는 “남성적인 군사주의의 전통과 호전적인 남성우월주의”는 남녀관계 역시 “남성의 야만성(brutality)에 지배되는 이성간의 관계(Cheng 131에서 재인용)”로 타락시킨다는, 즉 식민지와 여성에 대한 제국과 남성의 지배가 갖는 유사성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조이스로 하여금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에게 제국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식민지 남성들의 양상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조이스의 첨예한 인식은 입센을 지지하면서 생전의 지인(知人)이었던 파워어(Arthur Power)와 나눈 대화 내용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이 대화에서 조이스는 『인형의 집』을 집필한 입센의 목적을 “여성 해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의 단순한 도구”라는 인식에 대한 “여성의 거부”를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혁명”(Power 35)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죽은 자가 깨어날 때』(When We Dead Awaken)에 대한 서평에서 인간의 본성, 특히 여성에 대한 입센의 묘사를 극찬하며, 진실로 용감한 사람의 “본성에는 여성성이 독특하게 혼용

되어 있다”(CW 64)는 그의 발언과 함께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그의 사유의 단면을 보여준다.

「죽은 사람들」은 이처럼 식민지적 현실과 여성의 소외된 현실이 맞물리는 양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수직적인 서열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관계를 지향해 나갈 때 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소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조이스가 혁명이라고까지 피력했던 여성이 남성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거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불식은 곧 인간관계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해봄 직한 지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목적에 연연한 민족주의보다는 개인의 진실(individual truth)에 유념한 자아와 민족의 해방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던 조이스의 정치적 의도와 부합되는 지점이라고 파악된다.

2

게이브리엘은 지배와 종속의 인간관계가 각인된 가부장적/제국주의적 사고의 소유자이다. 자신을 타자와 구분하면서 그 ‘차이’를 근거로 타자 위에 군림하려는 게이브리엘의 위계적 인간관은 소위 ‘하층계급’의 여성인 릴리(Lily)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

파티에 늦게 도착해서 릴리의 시중을 받던 게이브리엘은 “옷 입는 데 물경 세 시간을 잡아먹는” 아내 그레타(Gretta)때문에 늦었노라고 마치 ‘농담’처럼 가볍게 말한다. 그러나 게이브리엘의 이 첫 마디는 이후 여성들과의 갈등을 예감케 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자상한 남편의 염려와 보살핌이 묻어 있는 듯한 이 발언의 틈새를 확대해보면 어린 아이와 여성을 같은 차원으로 보고자 하는 그의 무의식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옷 입는 시간만 보더라도 여성은 남성의 ‘제재’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의 이러한 우월의식은 “가능하다면 눈길을 걸어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D 180) 그레타의 자연스러운 성정이 남편(남성)에 의해 어른의 제재를 요하는 어린아이의 유치함으로 파악되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하듯이, 이성적 능력이 결여

된 여성 또한 그러한 능력을 소지한 남성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여성과 아이의 이러한 등가적 관계는 릴리와와 다음의 대화에서도 거듭된다.

“그런데, 릴리,” 그가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아직 학교 다니고 있니?”

“아, 아녜요, 선생님.” 그녀가 대답했다. “졸업한 지 일년도 넘는데요.”

“오, 그러면” 게이브리엘이 쾌활하게 말했다. “얼마 안 가서 근사한 신랑하고 결혼식 올리는 거 보겠네, 응?”

소녀는 어깨 너머로 그를 훑듯 돌아보며 아주 씩씩하게 내뱉었다.

“요즘 남자들은 전부 말만 번지르르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D 178).

이 대화에 앞서 이미 게이브리엘은 자신의 성(Mr Conroy)을 세 음절로 발음하는 릴리에게서 내심 자신과 그녀 사이에 놓인 분명한 계급의 차이를 확인했고, 계급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그녀를 ‘흡족한 눈길’로 ‘내려다보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어린 아이일 적 누더기 인형을 가슴에 안고 맨 아래 층계에 앉아 있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D 7)있던 그로서는 릴리의 이 “콘로이(Con-er-roy)”라는 세 음절의 발음이 다시 한번 그의 계급적 우월감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그에게 릴리는 하층 계급임을 상징하는 초라한 “누더기 인형”이나 가지고 그것도 “맨 아래” 층계에서 놀던 “어린애”에 불과한 존재로서, “졸업한 지 일년도 넘은” 릴리를 “아직도” 학생으로 생각하는 이면에는 여성을 미성숙한 ‘어린애’와 묶어 생각하고픈 그의 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릴리의 결혼식 운운 역시 얼핏 그녀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밀폐된 지하 식기실에서 자신의 옷시중을 들고 있는 “안색이 창백하고 머리칼이 건초색인, 한참 자라나는 호리호리한 소녀”(D 177)를 계급적 우월감에 젖어 바라볼 때 남성이 느끼는 성적 의도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한 요즘 남자들”(D 178)에 대한 릴리의 “씹쓸한” 평가는 그의 이러한 무의식을 읽어낸 성숙한 여성의 ‘예상치 못한’ “말대꾸”로 읽히지게 되고, 그녀의 “요즘 남자들”에 계급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 역시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그를 사뭇 당황하게 만들어버린다. 이처럼 소위 ‘하층계급’의 사람들에게 “말대꾸”를 금지하거나 또는 예기치 않았던 그들의 갑작스런 “말대꾸”에 당황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기존 위계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기 때문이며, 그만큼 현 위계질서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타자와의 구분에서 계급적 우월감을 고수하려는 게이브리엘로서는 그 구분 자체를 무시하는 “모든” 요즘 남자들에 대한 릴리의 신랄한 평가와 어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린아이길 거부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비아냥(sudden retort)”(*D* 179)은 그의 계급적 정체성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자신을 바라보는 타자의 관점 또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계급적 위치에 대한 타자의 침묵을 담보로 한 온전히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릴리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타자의 반응 또는 침묵을 기대했던 게이브리엘로서는 제 목소리를 지닌 릴리의 존재 그 자체가 실로 부담스러운 것이다. 릴리(백합)는 장례식과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의식에서 죽음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다(*Gifford* 112). 그렇다면 릴리의 “도대체 이전 같지 않은” “갑작스러운” 태도는 이후 그가 겪게 될 지속적인 ‘죽음’과 ‘소생’에 대한 일종의 암시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안경의 반질반질한 렌즈와 찬란한 금테가 불안하게 번쩍이며 그의 섬세하고 불안해 보이는 두 눈을 가려주었다”(D 178)는 게이브리엘의 외모 묘사 역시 그의 “불안한” 계급을 지탱하고 “가려주는(screen)” 힘은 다름 아닌 금테 안경이 상징하는 물질적 피상성에 기인함을 방증한다. 그래서 반복 사용된 “불안”이라는 어휘에 허구적인 그래서 늘 “불안한” 정체성에 대한 게이브리엘의 초조한 심기가 그대로 투사된다. 게이브리엘이 “구두에 윤을 내고” “몸에 걸친 조끼”(D 178)를 다시 여미는 동작으로 릴리의 “말대꾸”로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역시 그의 계급의식을 받쳐주는 ‘불안한’ 토대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동전 한 개를 불쑥 릴리에게 내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남성 에고의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sir, I wouldn't take it.)(D 178) 릴리와는 달리 거의 “애원하다시피”(D 178) 돈을 건네려는 그의 행위에서도 부(富)를 동원해서라도 현재의 우월한 위치를 고수하고픈 그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노리스(Margot Norris)는 조이스가 「죽은 사람들」을 통해 가부장제뿐만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자신의 예술 그 자체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평을 내린다(*Norris* 192). 이는 3인칭의 서술기법을 구사하면서도 1인칭의 테크닉이 지닌 친밀감의 효과, 요컨대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의 판단과 태도에 동조하게 만드는 조이스의 스타일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글에 대한 조이스의 부단한 성찰과 자의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서술 틈 사이에서 배어나오는 현실은 게이브리엘의 시각에서 그려진 것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각인된 사회의 성차별 의식을 간파하는 것이 힘들 듯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텍스트 역시 독자의 적극적인 독서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시끄러운 또는 잘 들리는 남성적 서술”(a loud or audible male narration)이 “침묵하는 또는 무시되는 여성의 대응 텍스트(a silent or discounted female countertext)”에 의해 도전받고 교란되는 두 개의 텍스트로 읽혀져야 한다(Norris 192)는 것이다. 결국 독자는 텍스트의 틈새 읽기를 통해서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며, ‘호의적인’ 게이브리엘에 대해 릴리가 보이는 ‘지나치게 신랄한’ “말대꾸”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이 지닌 의미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소외된 인물의 침묵과 반박 등이야말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기존관념들의 한계와 허구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이렇듯 게이브리엘의 남성중심적인 의식을 남성에게 호의적인 서술자 목소리로 포장하여 그 속에 가부장제의 폐해를 은밀하게 끼워 제시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이전 단편들 역시 여성억압의 문제를 함축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음은 바로 이 때문이며(Brown 93), 「죽은 사람들」의 경우 게이브리엘의 의식 이면에 숨어있는 남성중심적 사고나 교회의 성차별적 제도 등이 이를 침묵시키려는 서술자의 끊임없는 제재를 받으며 은밀하게 제시된다. 이처럼 그는 사회의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텍스트의 구조로 끌어들이면서 우리에게 서술자 목소리에 함몰되지 않는 독법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릴리의 “말대꾸”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녀가 「두 건달」(“Two Gallants”)의 무지했던 “하녀(Slavey)”와는 달리 “제 욕심만 채우려는” 남성의 속성을 이미 간파하고 게이브리엘의 속물적인 계급의식도 읽어낼 수 있는 여성임을 암시한다.

그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구를 넣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아듣게끔 셰익스피어 아니면 아일랜드 서정시집을 몇줄 인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사람들의 구두 발굽이 거칠게 뚜적거리는 소리며 구두창 끄는 소리가 그들의 문화수준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D 179).

문화적 속물근성이란 차이를 가치 평가하여 구분하면서 타자를 주변화시키려는 권위적인 경향(Cheng 139)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게이브리엘이 갖는 우월감의 근거를 보여주는 위의 예문은 그의 문화적 속물근성(cultural snobbery)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만찬 연설에서 브라우닝을 언급하려 한 사실에서도 그의 의식구조의 중요한 한 단면이 묻어난다. 그것은 브라우닝의 「내 전처(前妻)」(“My Last Duchess”)에 등장하는 페라라 공작(Duke of Ferrara)이 자신의 욕망과 목소리를 지닌 살아 있는 신부보다는 벽에 걸려 사물화된 그녀의 초상화를 선호한 가부장적 인물이었듯이, 게이브리엘도 여성을 남성의 욕망이 투사되는 빈 공간 정도로 간주하면서 여성의 정체성과 욕망마저도 남성 위주로 규정하려는 페라라 공작과 닮은 인물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까닭이다.

게이브리엘은 자신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이모들에게 “여기 우편물처럼 어김 없이 왔잖습니까(Here I am as right as the mail)”(D 177)라는 상투적인 비유로 자신의 도착을 알린 바 있다. 이는 “제국과 성적인 지배가 갖는 연관성”(Cheng 135)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male”과 “mail”이 갖는 동일한 발음에서 위의 “I am as right as mail”은 “I am as right as male”로 그 의미를 넓혀갈 수 있고, 남성(male)과 제국(mail)은 중심으로서 주변에 위치한 여성과 식민지에 올바른(right) 판단과 기준을 부여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가부장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명제의 공언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블린 우체국이 식민 봉기자들의 습격을 자주 받는 악명 높은 제국의 기구였다는 사실(Cheng 135)에서 보다 확연해진다. 자신을 우편물로 비유하는 그의 말은 「어떤 어머니」(“A Mother”)의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이 남편을 “중앙우체국을 존경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존경했으며, 그의 “남성으로서의 추상적 가치를 높이 샀다”(D 141)는 사실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한 사회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남성’과 ‘우체국’이 이처럼 동일한 추상적 가치를 지닌 기표로 각인되었다는 사실은 곧 그 사회의 상징적 질서에서 남성 권위가 갖는 절대성과 허구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게이브리엘은 『더블린 사람들』의 이전 단편들에 등장하는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들과 많은 점에서 다른 인물이다. 앞선 인물들과는 달리 그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과 가장으로서의 자상한 면이 있다. 하지만 게이브리엘에 대한 그레타의 조롱기 어린 다음의 비판은 가장의 권위로 가족을 억압하고

자 했던 여타 아버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이는 정말 골치덩어리예요, 밤에는 톱의 눈에 좋다고 등갓을 녹색으로 하라 그러고, 아령운동을 시키고, 또 이바한테는 강제로 옥수수죽을 먹이고 그러는 거 있죠. 개가 딱해요! 딸애는 보기만 해도 질겁을 하는데 말예요! (. . .) 오, 하지만 저한테 오늘 뭘 신으랬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야!” (. . .) “겔로시를 신으래요!” (. . .) “다음은 아마 잠수복을 사들고 올 거예요.” (D 180).

창(Vincent J. Cheng)이 지적한 것처럼 위의 예문에 드러난 게이브리엘의 이미지는 “아버지의 법을 강요하는 호의적인 가정의 폭군(Cheng 136)”의 양태를 띤다. 이에 그레타는 ‘질식할 듯한’ 그의 통제를 “잠수복”이라는 메타포를 빌어 상징적으로 비판한다. 또한 “대륙에서는 누구나 신는”(D 181) 겔로시 역시 “식민모국(제국)의 문화적 수준을 자신이 어느 정도 전유하고 있느냐,” 즉 “자신의 흑인성 혹은 원시성의 폐기를 통하여 백인화되어 가는”(Fanon 18) 식민지 흑인처럼 대륙으로 상징되는 지배자의 행태를 모방하고 내면화하려는 게이브리엘의 사대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지 못할 때 세력이 강한 대상에 기대어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경향을 사대주의라고 할 때, “대륙에서는 누구나 신는” 것에 대한 게이브리엘의 이러한 맹목적인 추종은 피지배자의 사대주의적 의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겔로시에 대한 그레타의 설명과 이에 대한 줄리아(Julia)의 반응을 보여주는 다음의 예문에서도 게이브리엘의 이러한 속성은 이에 비판적인 여성들에 의해 은연중에 폭로된다.

“(. . .) 고무 비슷한 겔로 만든 거예요. 우리 둘 다 한 켄레씩 갖고 있어요. 게이브리엘 애기로는 대륙에서는 누구나 신는다는데요.”
 “오, 대륙에서라.” 줄리아 이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D 181).

인도산 고무 또는 그보다 탄력성이 덜한 고무제품으로 만든(Gifford 114) 겔로시는 그것이 지닌 식민지와의 관련 때문에 제국의 식민지 착취를 반영하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한다. 고무 생산국인 인도나 말라야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은 곧 식민지의 자원수탈이 제국의 물질적 안락과 수준 높은 문화

의 물질적 토대로 기능함을 말해주는 때문이다(Cheng 136). 그레타는 돌연 “겔로시”라는 단어에서 당시 흑인 분장으로 백인 관객의 여흥을 돋구던 크리스티 악단을 연상하게 되는데(D 181), 이는 아일랜드의 식민 역사의 문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부분에서 좀 더 논의되겠지만 그레타는 식민 역사를 지닌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체현한 인물이다. 그녀가 “겔로시”라는 단어를 흑인과 연결시키면서 흑인으로 대변되는 식민지를 연상하고, 이를 다시 동족의 식민 역사를 추적해가는 상징적 과정으로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줄리아의 생략된 반응 역시 게이브리엘의 사대주의적 속물근성을 꿰뚫어 보는 여성의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생략된 부분은 오히려 텍스트의 여백을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텍스트가 제시하는 현실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효과, 요컨대 생략된 담론은 표현된 담론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 까닭이다.

3

릴리와와의 얘기치 않았던 갈등을 시작으로 이제 게이브리엘은 몰리 아이버스(Molly Ivors)와 마찰을 빚게 되고 이는 그의 취약한 민족의식의 노출로 이어진다. 랜서즈(4인무의 일종)에서 게이브리엘과 짝이 된 아이버스는 “느닷없이” 게이브리엘을 “뚝바로” 쳐다보며 “G. C.가 누구죠”라고 묻는다. G. C.는 Gabriel Conroy의 이니셜로서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지에 G. C.라는 이니셜로 글을 기고하고 있었고, 아이버스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버스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게이브리엘에게 동정의 어조를 보이는 서술자 목소리로 여러 겹 포장된 채 들려온다.

“글쎄요, 난 당신이 부끄러워요.” 아이보스양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따위 신문에 기고를 하시다뇨, 친영파이신 줄 미처 몰랐어요.”

난감한 표정이 게이브리엘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가 매주 수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문학 기사를 써서 15실링의 원고료를 받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꼭 친영파라고 할 수는 없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 그가 받는 책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수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D 188).

물론, 아일랜드의 독립을 반대하는 잡지에 서평을 기고한다는 사실만으로 친영파(a West Briton)²⁾로 규정하려는 아이버스의 분별이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아니다. 하지만 “문학은 정치 위에 있는 것”(D 188)임을 애써 강변하려는 그의 태도에서 식민지적 자아의 흔적을 문화적 우월감으로 애써 감추려는 일말의 의도를 엿보게 된다.

연이은 아이버스와의 갈등이 게이브리엘에게 주는 당혹감은 “떠들거리며(lamely)”, “어색하게(awkwardly)”, 그리고 “초조하게(nervously)” 등의 부사어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는 그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한 여성에 의해 그의 남성 에고를 에워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고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여성에 대해 그가 보이는 혼돈과 두려움을 암시한다. 인간의 서열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를 ‘그들’과 갈라놓는 여러 형태의 피상적인 경계선이다. 따라서 주어진 어느 한 영역‘선’ 안에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미결정성(indeterminacy)’은 그 자체로 체재저항적인 힘을 발휘한다. 즉 지배주체인 남성의 공간적 동질성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매번 예상을 빚나가는 아이버스의 ‘고정되지 않은’ 모습은 게이브리엘로서는 심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처녀, 아니면 여인, 아니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 그녀 [아이버스]”(D 190)라는 그의 ‘혼돈’된 표현에는 “구성된 여성성의 이념적 담론”(Moyra Haslett 51)에 위배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혼돈’과 두려움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버스는 게이브리엘에게 여름에 아란섬으로 놀러 가자는 제의를 한다. 그레타의 고향도 코너트(Connacht)임을 상기시키며 함께 갈 것을 권유하는 그녀에게 그는 대뜸 “그레타 집안이 그렇죠”(D 189)라며 “통명스럽게(shortly)” 대꾸한다. 이는 골웨이 출신인 그레타의 “촌스러움”을 무시하면서 “집안의 위신에 매우 민감했던”(D 186) 어머니의 속물근성을 반복하는 언사로서, 게이브리엘 역시 그레타로 상징되는 서부 아일랜드의 덜 문화적이며 교양이 부족한 것들과의 구분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임을 말해준다. 엘만의 지적처럼 “그가 잊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아내의 과거가 지닌 요소”(Ellmann 248)였던 것이며, 이는 자신의 민족성 자체를 외면하면서 제국의 관습과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그의 우월의식의 토대임을 방증해 보인

2) 아일랜드를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고 영국의 서부 지방으로 생각하면서 영국에 충성하는 사람을 일컫음. (Gifford 116)

다. 아이버스의 권유를 거절하는 이유로 게이브리엘은 자신은 친구들과 “대개 프랑스나 벨기에 아니면 독일이나 그런 데 간다”(D 189)고 대답한다. 이때 그가 거론하는 나라들이 주로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라는 점은 조이스가 그의 「아일랜드, 성자와 성인들의 섬」(“Ireland, the Island of Saints and Sages”)에서 “콩고에 대한 벨기에의 잔혹한 식민 지배를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잔혹한 착취와 견주었던”(CW 166) 사실과 비교되면서 게이브리엘의 의식이 향해 있는 방향을 가늠케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륙 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게이브리엘과 조이스의 연관성을 짚어볼 필요를 느낀다. 조이스 역시 조국의 편협한 민족주의 운동에 반대하고 입센의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문학의 모범을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아일랜드, 성자와 성인들의 섬」을 위시하여 망간(Mangan), 파넬,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주의(Fenianism) 등 민족 문제에 대한 일련의 그의 글들은 조이스가 이에 등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조이스는 민족주의 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경직되고 폭력적인 방법을 반대하며 보다 보편적이고 평화적인 노선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의 열기가 한창일 때 쓰여진 『율리시즈』(Ulysses)에서 평화적인 성향의 유대인 블룸(Leopold Bloom)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와 그리피스(Arthur Griffith) 사이의 모종의 연관성을 텍스트 곳곳에 배치한 것도 그리피스가 표방한 경제 우선의 평화적인 민족 운동이 “더 효율적”(SL 125)이라는 조이스 자신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은 민족에 대한 깊은 염려가 내재된 조이스 방식의 애국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게이브리엘의 맹목적인 대륙지향성은 바로 이 점에서 조이스와 다른 것이며, 난처한 상황에서 탈출하고픈 그의 욕망이 제국의 주변을 맴돌며 전개되는 데서도 이러한 차이는 분명해진다.

혼자 밖으로 나가서, 우선 강변을 따라 걷고 그런 다음 공원을 산책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눈이 나뭇가지 위에 쌓여 있고 또 웰링튼 기념비 위에 환한 빛의 모자처럼 덮여 있을 것이다. 저녁식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곳이 훨씬 더 유쾌할 텐데! (D 192)

게이브리엘이 “영국 권력의 상징물”(Rod Mengham 80)인 웰링튼 기념비를 상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벗어나려 한 것은 위의 맥락에서

자못 중요하다. 그것은 민중 발라드의 익명성과 대별되어 승자의 기념비가 지닌 공공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³⁾ 자기 “혼자”만의 제국 지향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빛나는 눈모자를 쓰고 있는 웰링튼 기념비”(D 202)에 대한 상상은 만찬 연설을 구상할 때 다시 한번 게이브리엘의 뇌리를 스치면서 그의 제국주의자의 면모를 재차 강조한다. 또한 웰링튼 동상처럼 “외투 어깨 가장자리에 환한 색의 눈이 어깨 망토처럼”(D 177) 내려앉은 채로 작품 첫머리에 등장했던 게이브리엘의 모습 역시 그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재현해 보인다.

또한 그는 “무식한 할머니들”(D 192)에 불과한 두 이모를 빗댄 내용의 연설로 자존심을 실추시킨 그녀에게 되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서열의식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다. 그렇다면 “무식한 할머니들”을 끌어 들여 “자신의 손상된 자아를 달래려는”(Henke 43) 이러한 행위는 서열상 자신보다 못하다고 간주되는 타자는 수단으로 전유될 수도 있다는 그의 제국주의적 사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릴리의 예상 밖의 “말대꾸”와 가족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이모들의 “단골 농담거리”(D 180)가 되면서 화가 났던 그가 때마침 술주정꾼인 프레디 맬린즈(Freddy Malins)가 나타나자 “계단을 쿵쿵거리며(noisily) 내려가”(D 182) 그를 “몰고 오면서”(piloting)(D 184) 유능함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과도 상통한다. 결국 그에게 “객체(object)는 단지 도구”일 따름이며, 그의 “주체적인 안정(subjective security)을 실현시켜주어야 하는”(Fanon 212)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4

이제 무대는 파티가 끝나고 떠날 차비를 하는 사람들로 분주한 현관 마루로 옮겨진다. 마차를 잡는 동안 화제는 말과 마차에 관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고, 게

3) 공공 기념비는 공식적인 기억의 표현이며 과거의 합법적인 승리를 정당화하고 시민들에게 그것이 지닌 권위를 주장한다. 공공 장소를 차지하고 그 당당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거리의 속요(street ballad)와 같은 문화적 형식에 의존하는 패자의 기억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기념비는 그것의 영구적인 물질적 형상으로 기억의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릴 수 있다. (Gibbons 367-8 참조)

이브리얼은 할아버지 패트릭 모컨(Patrick Morkan)과 그의 방앗간에서 종일 “방아를 돌리던” 조니(Johnny)라는 말에 대한 ‘우스운’ 일화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말년에 “노신사”(the old gentleman)로 알려졌던 그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유지들과 함께 공원의 군대 열병식”을 보기 위해 “가장 좋은 군복 목도리 깃”으로 한껏 치장하고 조니를 타고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분은 조니와 함께 달렸어요. 모든 것이 근사했지요. 그러다 조니가 빌리 왕의 기마 동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빌리 왕이 타고 있는 말과 사랑에 빠졌는지 아니면 다시 방앗간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간 말이 동상 주변을 돌기 시작했답니다.”

게이브리얼은 사람들이 웃어대는 가운데 걸로시를 신은 채 현관 마루 주변을 빙빙 돌았다. (D 208).

“노신사”로 알려졌던 패트릭 모컨이 “유지들”과 함께 가장 좋은 “군복 목도리 깃”을 달고 “군대 열병식”을 보러 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게이브리얼과의 상관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식민지 시대의 “신사”와 “유지”란 아마도 지배자의 가치를 내면화한 인물일 테고, 할아버지의 이러한 속성은 게이브리얼의 어머니와 게이브리얼 자신에게 이어진 것(Cheng 141)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빌리 왕은 보인(Boyne) 전투(1690)에서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아일랜드 카톨릭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프로테스탄트 왕 윌리엄 3세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 정복자의 동상 주변만을 맴돌 뿐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조니의 모습에 제국의 지배에 길들여진 식민지인의 마비된 의식이 투영된다. “대륙에서는 누구나 신는” 걸로시를 신고 현관마루를 빙빙 도는 게이브리얼이 정복자 동상의 주변을 맴도는 조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때 게이브리얼은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며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한다. 마치 「애러비」(“Araby”)의 소년이 “그녀에 숨어” 친구 망간의 누이를 훑쳐보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계단 위의 “한 여자”를 바라보던 게이브리얼은 그녀가 “그의 아내”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친숙한’ 일부였던 그녀가 “한 여자”로 느껴졌던 “이상한 분위기”에 사뭇 당황한다.

그는 그 목소리가 노래하는 가락을 따라잡으려고 하면서, 또 자기 아내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현관 마루의 어두운 곳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태도에는

우아함과 신비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의 상징인 것처럼. 그는 계단 어두운 곳에 서서 먼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여자는 무엇의 상징일까 자문해 보았다. 자기가 화가라면 그는 그 자세로 그녀를 그릴 거였다. (. . .) 만일 그가 화가라면 그 그림을 '먼 음악'이라고 부를 거였다. (D 210).

아내를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그녀의 “아내다운 행동거지”(D 215)에 만족해왔던 게이브리엘에게는 그레타의 이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녀의 정체성을 ‘아내’라는 자신과 연결된 존재 또는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만 규정해왔던 그로서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우아함”과 “신비”를 어떤 ‘상징’의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이해하려 함은 곧 그레타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좌절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

살아 숨쉬는 현실의 신부보다 미적 대상물인 그림 속의 신부를 선호했던 브라우닝의 페라라 공작처럼, 또는 자신이 생각한 여성의 이미지로 현실의 여성을 대체하고자 했던 신화 속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처럼 게이브리엘 역시 욕망의 주체로서의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신 그는 아내의 빈 공간에 남성이 추구하는 예술과 상징, 즉 남성 욕망의 객체로서 대상화(objectification)된 여성을 채워 넣고자 한다. 페라라 공작이 전처(前妻)의 “너무 빨리 기뻐하고 너무 쉽사리 감명을 받는”(too soon made glad, / Too easily impressed) 마음에 “명령을 내려 모든 미소를 딱 그치게 했던 것”(I gave commands; / Then all smiles stopped together)(“My Last Duchess”)처럼 그는 그 실체를 포착하기 힘든, 그래서 자신의 지배권을 벗어난 아내의 “우아함”과 “신비”를 자신의 의지가 투사된 상징 또는 그림으로 대상화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게 여성은 이렇듯 자신의 고유한 욕망과 역사가 부재한 빈 페이지에 불과한 존재이며, 남성의 체계와 관련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는 객체에 불과했던 것이다.⁴⁾

4) 『더블린 사람들』의 많은 남성 인물들은 현실 속의 여성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이미지가 투사된 여성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게이브리엘과 유사성을 보인다. 「애러비」에서 소년의 경모의 대상이 된 망간의 누이는 이름도 없이 단지 그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갈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만 소개된다. 「구름 한점」의 캔들러는 현실의 아내보다는 “육감적인 열망”으로 가득찬 “검은 눈동자”의 여자 또는 “좁은 무덤 속에 그녀의 육신이 누워있는” 시(詩)로 이상화된 죽은 여자를 그리워한다. 또한 「가슴 아픈 사건」의 가부장적인 더피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던 열정적인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대해 “삶에는 부적합한 여자”라는 판결을 내리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억압적인 종교적 분위

남성의 창작활동을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두려움과의 상관성에서 파악하는 카렌 호니(Karen Horny)의 지적은 여성에 대한 게이브리엘의 인식태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그녀에 따르면 남성은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는 여성을 대상화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성을 향한 욕망과 두려움 사이의 부단한 갈등을 남성의 창작 충동의 근원적인 뿌리(Henke 3-4에서 재인용)로 파악하는 그녀에게서 우리는 조이스가 게이브리엘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전반적인 남성작가들의 여성 재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⁵⁾

앞서 잠깐 지적했듯이 그레타는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는 망간의 「흑인 여자 로셀린」(“Dark Rosaleen”)이나 에이츠의 「홀리한가(家)의 캐슬린」(“Cathleen ni Houlihan”)의 알레고리적인 여성들이 아일랜드 민족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과도 연관되지만, “걸로시”라는 단어에서 흑인으로 대변되는 식민 역사를 어렴풋하게 떠올렸던 그녀의 행위가 이후 한 민중 발라드를 축대로 민족의 수난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상징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데서 확인된다. 아일랜드인들이 당시 영국인들에 의해 “흰 니그로와 켈틱 캘리번(white negros and celtic calibans)”으로 비유되었던 사실(McClintock 52)에서도 흑인과

기에서 성장한 『초상』의 스티븐 역시 여성을 남성의 영혼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하면서, “그 유혹녀(the temptress)를 경적된 심미적 정지상태의 세계에 국한시키고, 남성의 상상력으로 통제되는 예술의 대상으로 변형시켜 육체적인 충동을 극복”(Henke 5)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단적인 예로 E. C나 새 소녀(bird girl)에게서 받은 충동을 시로 표현하려는 그의 시도를 들 수 있다.

- 5) 조이스의 「죽은 사람들」은 입센의 『우리 죽어서 깨어날 때』(When We Dead Awaken)와 많은 점에서 상호 텍스트적인 연관을 보인다. 그 한 예로 『우리 죽어서 깨어날 때』의 아이린(Irene)의 “이상한 말”(strange words)은 그레타의 “이상한 분위기”(strange mood)와 겹쳐지면서 이 두 여성인물의 포착하기 힘든 실체가 결국에는 두 남성인물을 변모시키게 되는 “내면의 힘”(inner power of character, CW 53)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그레타의 “이상한 분위기”를 미적대상으로 전환시켜 예술로 환치하려는 게이브리엘의 행위는 조각가 루벡(Arnold Rubek)이 살아 있는 아이린에게서 개인성(individuality)을 빼앗고 여성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부활의 날』(The Resurrection Day)라는 조각을 완성하는 행위와 일치한다. 루벡의 예술을 위한 희생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즉 심미적 행위는 살인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아이린의 비난은 여성을 단순한 미적 대상으로 국한시키며 여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여된 남성 작가들의 한계를 드러낸다. (Spoo 102-3)

아일랜드인이 공유하는 식민 역사는 분명해진다.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은 「오그림의 처녀」(“The Lass of Aughrim”)는 바로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그녀의 죽은 연인인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가 즐겨 불렀던 이 노래가 잊혀진(어쩌면 게이브리얼과의 결혼생활을 위해 잊혀져야 했던) 그레타 자신의 개인사를 복원해 가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 귀족에게 버려진 한 젊은 여자의 슬픈 사연⁶⁾이 담긴 이 “발라드가 아일랜드를 여성으로 알레고리화하여 정치적인 울림을 지닌다”(Gibbons 369)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레타의 개인사와 아일랜드의 민족사의 복원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도 자못 중요하다. 식민지인들의 억눌린 정서를 담은 민중 발라드가 이처럼 “정치적 울림”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알레고리가 일종의 대응 담론(counter-discourse)의 역할을 하면서 제국주의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피지배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의 정복 이후 18세기의 시(詩)나 민중 반란이 이러한 알레고리로 형상화될 때, 그 강렬한 웅변성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었던 것은 “상실의 외상적 체험(the traumatic experience of loss)”에 기인한 침묵과 닮아 있다는 사실(Gibbons 368)에서도 그레타가 보여주는 침묵 또는 망각과의 모종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한다.

“다씨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부르던 노래 제목이 뭐지요?”

“오그림의 처녀던가,” 다씨씨가 말했다. “하지만 제대로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아시는 노래가요?”

“오그림의 처녀라,” 그녀가 되풀이했다.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D 212).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발라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녀는 노래의 제목을 얼른 떠올리지 못한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이브리얼의 아내가 되기 위해 묻혀져야 했던 그녀 자신의 과거(Spoo 109), 다시 말해서

6) *O, the rain ralls on my heavy locks/ And the dew wets my skin,/ My babe lies cold.* . “The Lass of Lochroyan[or Loch Royal]”의 서부 아일랜드 버전. 한 젊은 여자농부가 어떤 귀족에게 유혹을 받지만 이내 버림을 당한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성으로 그 귀족을 찾아가지만 그 귀족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에 인용된 위의 귀절은 그녀가 비를 맞으면서 하는 불평이다. 거절당한 여자는 바다로 가 아이와 함께 물에 빠져 죽는다. (Gifford 123)

너무 오랜 동안 억눌려 있어서 쉽게 표면화될 수 없는 그녀의 억압된 욕망 또는 기억이 그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골웨이 출신이라는 아내의 ‘촌스러움’, 즉 아내의 개인 역사 자체도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게이브리엘의 이기적인 의식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발라드의 제목을 물어보는 그레타의 행위는 가부장적 남편으로 초래된 “식민지적 실어증 상황(the aphasic condition of colonialism)”(Gibbons 359)에서 말문을 트려는 미약하나마 조심스러운 시도로 보인다. 또한 민족의 식민사를 알레고리화하고 있는 발라드의 제목과 가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상실의 외상적 체험”을 딛고 일어서서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보려는 상징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게이브리엘이 “대륙에서는 누구나 신”을 걸로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당당하게 유포하는 신문 그리고 제국의 승리를 정당화하는 공공 기념비 등 제국의 외적 표상물과 연결된 인물이라면, 그레타는 이렇듯 식민지적 상황에서는 결코 드러낼 수 없었던 “패자의 기억”을 담은 민중 발라드와 연결된 존재인 것이다.

그레타의 행위에서 유추되는 질곡의 역사는 발라드의 지명이 상징하는 아일랜드의 역사를 돌아켜볼 때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 오그림은 그레타의 고향인 골웨이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로 1691년 영국의 윌리엄 왕이 승리를 거두며 “고대 게일릭 질서의 파괴”(Gibbons 369)를 초래한 아일랜드로서는 역사적 상흔이 배어 있는 장소이다.⁷⁾ 이러한 사실(史實)에 비추어볼 때 그레타 개인의 과거사는 민족의 수난사와 내밀하게 얽혀들면서, 잊혀진 발라드의 제목을 물어보는 그녀의 행위는 그레타 개인으로서는 잊혀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었겠지만, 민족적 차원으로 그 지평을 넓혀 보면 민족의 식민 역사를 추적하고 그 의식을 새로이 정립해가려는 상징적인 모색의 과정으로 보인다. 그레타의 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개인사 및 민족사의 이러한 복원 과정은 “똑같은 자세로 자

7) 오그림이라는 마을이 아일랜드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상징성을 띠는 것은 그것이 보인 전투 및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와 갖는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다. 얼스터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은 1690년 보인 전투에서의 영국의 승리에 대해 7월 12일을 “White Horse Day”로 정해 경축한다. 그러나 그 날짜와 전투는 (어쩌면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오그림 전투와 연관되며 자주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포스터(R. F. Foster)는 *Modern Ireland 1600-1972* 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보인 전투의 승리를 경축하지만, 오히려 일 년 후에 있었던 오그림 전투가 아일랜드로부터 모든 희망을 앗아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투였으며 ‘최악의 재난’이었다고 설명한다. (Cheng 143에서 재인용)

기 주변의 대화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D 212) 그녀의 몰입된 모습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게이브리엘에게는 “뺨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반짝이는”(D 212) 성적 매력으로만 느껴지는데, 이 또한 그들의 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음을 말해준다.

자신의 성적 충족에 앞서 우선 그는 그레타를 남성의 제재가 필요한 “옷 입는데 물경 세 시간이 걸리는” 존재로 환원시키고, 릴리와 아이버스에게 손상된 자신의 남성 에고도 원위치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그에게 “그녀 [그레타]는 어찌나 연약해 보였는지 무언가에 맞아서 보호해주고, 그런 다음 그녀와 단 둘이 있고 싶을 지경”(D 213)이었는데, 이는 여성을 남성의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려는 그의 ‘회복된’ 우월의식의 반증인 것이다. 또한 그는 그녀에게 “함께 살았던 삶 중 활기 없던 세월은 잊고 오로지 그 황홀의 순간들만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하는데”(D 213-4), 이 또한 여성의 기억조차도 남성의 선별을 거쳐 새롭게 각인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레타가 “자기 것이라는 게 행복했고, 그녀의 우아함과 아내다운 행동거지가 자랑스러웠다”(D 215)는 표현의 “자기 것”과 “아내다운”이라는 어휘에 이러한 그의 남성중심적인 의도가 진하게 배어 난다.

하지만 친숙한 소유물로만 간주했던 그레타가 뜻밖의 ‘낯설음’을 보여주게 되자 그는 이에 당황하게 되고, 급기야 “그녀의 몸을 으스러지게 비비고 싶었고, 그녀를 정복”(D 217)하고픈, 즉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녀의 “이상한 분위기 (strange mood)를 다스리고자”(D 217) 한다. 그의 이러한 남성적 폭력의 발로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꼭 눌러서 육체의 맹렬한 충동을 간신히 누르고 있는”(D 215) 남성의 욕망에 대해 ‘자발적으로’ 응해오지 않는 여성에 대한 성적 좌절 또는 분노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여성을 욕망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로서는 남성의 욕망에 당연히 순응해야 할 “그녀가 그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자진해서 다가 오지 않는”(D 217) 상황은 당혹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지배와 아내의 순종이라는 전제를 맴돌며 전개되던 게이브리엘의 이러한 가부장적 사고는(Henke 45) 그레타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접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오그림의 처녀」라는 발라드와 그것을 그녀에게 불러주곤 했던 마이클 퓨리라는 남자가 “자기 것”인 그레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에 게이브리엘

은 “미지근한 분노”(D 218)를 느낀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분노는 마이클 퓨리에 대한 “비꼬는 투의(ironically)” “차가운(coldly)” 어조의 질문으로 표출된다. 하지만 그의 분노와 질투의 대상이 이미 열일곱 살에 죽은 가스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이러니도 빗나간 데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가스공장 소년을 불러낸 것에 그는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D 219). 그가 그들만의 추억으로 들떠 있었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의식이 와락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보였다. 이모를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사람은 좋은 감상주의자, 속물들한테 연설이나 해대고 자기 자신의 바보스런 욕정을 이상화하는, 자신이 거울에서 홀쏘게 보였던 그 가련한 얼빠진 놈. (D 219-20).

그레타가 “자기 것”임을 확신했을 때의 욕정, 그 확신대로 그녀가 따라주지 않았을 때 “미지근한 분노”를 느꼈던 게이브리엘은 그러한 확신이 일거에 무너진 지금 굴욕감으로 괴로워한다. 방금 전 자신감에 넘쳐 바라본 거울 속의 “넓고 짙은 와이셔츠 앞가슴”이며 “희미하게 빛나는 금테 안경”(D 218)의 당당했던 모습은 이제 “가련하고 얼빠진 놈”(D 220)으로 그 인식이 바뀌게 된다.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그레타의 ‘모호한’ 말(D 220) 역시 알레고리화한 여성인물들로 민족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적 상황과 연관된다. 민족에 대한 사랑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 아일랜드인들은 「흑인 여자 로셀린」이나 「홀리헌 가의 캐슬린」에 등장하는 알레고리적인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충절의 맹세를 통해 억눌린 민족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⁸⁾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의인화가 추상적인 또는 절대적인 의미에

- 8) 흰색의 여성옷을 입고 Queen Sieve라는 신비한 여성인물에게 충절을 맹세했던,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의 말대로 “아일랜드에서 여성으로 변장한 남성들이 주도한 가장 광범위한 봉기의 예”가 된 18세기 중반의 화이트 보이(Whiteboy)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충절의 대상은 ‘Shevane Meskill’ 또는 ‘Sieve Oultagh’(ghostly sally) 등 농민들의 상상 속에서 내세와 현세 사이를 떠도는 일련의 불가사의한 여성인물들이었다. 도넬리(James Donnelly)는 이 선동적인 이미지들이 여성을 아일랜드로 의인화하고 아일랜드인들을 그녀의 자식으로 노래하는 발라드나 예언서와 같은 민중적 형식을 통하여 농민의 의식 속으로 들어갔음을 지적한다. ‘Queen Sieve’가 민족주의적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채택된 아일랜드의 상징일 수는 없지만, 서민들은 그들의 집단적 궁경

서 민족주의를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일련의 불만을 지엽적 지평 너머로 끌어 올리는 강력한 상징적인 수단을 제공했던”(Gibbons 366) 셈이다. “아일랜드인들은 나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말하길 좋아했다. (. . .) 그러한 우호적인 환영의 베일 아래에서 그들은 애국자들이 노출되는 위험한 현실을 그들의 정신 속에 감추고 싶어했다”(Gibbons 367에서 재인용)는 헤이즈(Edward Hayes)의 지적 역시 ‘시에브 여왕’, ‘흑인 여자 로셀린’ 그리고 ‘홀리헌 가의 캐슬린’ 등의 ‘모호한’ 여성인물들을 향한 그들의 충절이 식민지적 상황에서 채택될 수밖에 없었던 저항의 한 양식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식민지적 상황에서 촉발된 사실적인 것과 알레고리적인 것,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모호한 구분은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그레타 개인의 기억이 민족적 차원의 알레고리로 확대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제 그는 “그녀의 슬픔을 방해하지 않고”(D 222) 잠든 “그녀를 가엾다는 기묘하고도 친밀한 생각”(D 222)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그의 의식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비로소 그는 그레타 역시 자신이 ‘보살피고’ ‘지배’해야 할 “자기 것” 또는 자신의 ‘아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녀 역시 자신만의 욕망과 기억을 지닌 자신과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할 “가엾고도 친밀한” 독립된 개별자임을 어렵게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내의 인생에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었구나.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 죽었구나”(D 222)라며 아내의 개별적인 존재성과 주관적인 역사를 인정할 뿐더러,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마이클 퓨리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올리시즈』에서 물리의 의식을 홀리가는 “남자가 여자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데도 그의 생을 포기할 지경이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임에 틀림없다”(U 18.1056)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죽은 사람들」과 「페넬로피」(“Penelope”)가 갖는 상관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식을 점유하고 있던 가부장적/제국적 사고의 허구성을 감지하고 그것의 폐기를 예감하면서, 그는 “그녀의 남편인 그가 그녀의 삶에서 했던 역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든가 하는 생각에도 거의 아파하지 않게 된다”(D 222).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의 행적을 돌이켜 보며,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연결하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Ellmann

251), 즉 “상호성”의 개념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정체성의 소멸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모두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이를 먹어 음울하게 빛 바래고 시드는 것보다는 수난의 충만한 영광 속에 과감하게 저승으로 건너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 눈물이 게이브리엘의 두 눈에 흠뻑 피었다. 그 자신은 어떤 여인을 향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지만 그 감정이 분명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 그의 영혼은 무수한 죽은 자들이 사는 영역에 접근한 것이었다. (...) 그 자신의 정체성은 만져지지 않는 어떤 잿빛의 세계 속으로 스러져가고 있었다. 견고한 세계 자체가, 이 죽은 자들이 한 때 키웠고 새웠고 또 그 안에서 살았던 그곳이 해체되고 또 줄어들고 있었다. (D 223).

그레타의 비전을 계기로 게이브리엘은 새로운 각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다. 그레타의 개인적인 욕망과 기억을 이해하면서 그는 공존의 정의를 터득해가는 기미를 보이는 것이며, 이는 그의 눈에 가득 고인 “너그러운 눈물”(generous tears)(D 223)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제국/남성 중심의 허구적 정체성을 극복해내려는 조짐으로 이어지는데, 그의 이러한 변화는 “연인의 눈동자를 가슴 속에 그토록 오랜 세월 고이 간직했던”(D 223) 그레타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레타는 이렇듯 “가슴 속에 그토록 오랜 세월 간직했던” 과거를 재생시켜 마이클 퓨리를 소생시킬 뿐더러 게이브리엘의 영적인 갱생도 도모하면서 이 작품의 최종 이피퍼니를 마련한다. 조이스의 여성인물 중 “처음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열정적인 여성”(Henke 42)으로 등장하는 그레타는 『울리시즈』의 마지막 말(the last word)을 맡아줄 몰리와 『피네건의 경야』의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Anna Livia Plurabelle)로 이어지면서 조이스가 피력코자 하는 여성성의 시발점을 형성하게 된다.

죽음은 소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게이브리엘의 연인은 여성들과의 마찰은 그의 남성 에고를 에워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에 균열을 만들었고, 이 균열로 인

해 비로소 그는 “견고한 세계 자체가, 이 죽은 자들이 한때 키웠고,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살았던 그곳이 해체되고 또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에 조금씩 접근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모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사실은 한갓 허구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성들과의 술한 갈등을 거치면서 남성 예고의 지속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서쪽으로 여행을 떠날 때가 온 것”(D 223)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그의 “영혼은 천천히 정신을 잃는다”(D 224).

「죽은 사람들」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외로운 교회마당”과 “십자가와 묘석들” 위로 내리는 눈은 “죽음”에 관한 숙명의식을 자아내는 중요한 메타포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눈이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희미한 소리”를 내며 내린다는 사실이다. 이 “희미한 소리”는 필시 지금까지 타자와의 진정한 교류를 차단해왔던 게이브리엘의 위선과 오만의 벽들이 스러지면서, 서서히 균열의 조짐을 보였던 그의 남성 예고의 목은 껍질이 떨어져나가는 소리일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회색시킴과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내리는 눈은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민족의 공동체적 운명을 일깨우며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예비한다.

이렇듯 『더블린 사람들』은 첫 단편의 플린(Flynn) 신부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편의 게이브리엘의 영적인 소생의 조짐으로 마감한다. 다시 말해서 「자매들」(“The Sisters”)에서 「은총」(“Grace”)에 이르는 열 네 편의 앞선 단편에서 동족의 생중사의 마비 상태를 가혹할 정도로 천착해 온 조이스는 이제 마지막 「죽은 사람들」의 게이브리엘을 통해 그 시정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때 주목할 것은 그에게 갱생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그의 가부장적/제국적 이데올로기의 위선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기억과 욕망을 폐기하지 않았던 여성들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모든 작품에서 조이스는 인간의 문명을 로고스와 에로스, 남성원리와 여성원리, 상징적 담론과 기호적 과정의 끊임없는 대화로 묘사한다(Henke 7). 여성은 그에게 있어서 힘과 이성의 논리에 근거한 남성적인 공격성과는 달리 풍요로움, 혼돈, 그리고 모성의 자연스러움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 제 목소리를 스스로없이 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조화로운 인간형에 근접할 수 있는 관건인 것이다.

인용 문헌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Brown, Richard.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Cairns, David and Shaun Richards. *Writing Irelan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Eagleton, Terry. "Nationalism: Irony and Commitment." In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Terry Eagleton et al.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23-39)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ans. Charles Lam Markmann. New York: Grove Weidenfeld, 1967.
- Gibbons, Luke. "Identity without Center: Allegory, History and Irish Nationalism." *Cultural Studies* 6 (1992): 358-75.
- Gifford,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Haslett, Moyra. "The girl or woman, or whatever she is . . . : 'Femininity and Nationalism in Joyce.'" In *RE: Joyce: Text, Culture, Politics*. John Brannigan. et al eds. New York: Macmillan, 1998, pp.45-59.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 _____. *Ulysses*. Hans Walter Gabler et al. eds., Harmondsworth: Penguin, 1993.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59.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MacClintock, Anne. *Imperial Leather: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lonial Context*. New York: Routledge, 1995.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1980.
- Mengham, Rod. "Military Occupation in 'The Dead'." In *Re: Joyce: Text, Culture, Politics*. John Brannigan et al. eds. New York: Macmillan, 1998, pp.77-86.
- Norris, Margot. "Not the Girl She Was at All: Women in 'The Dead'." In *James Joyce: The Dead*. Ed. Daniel R. Schwarz. New York: Martin's Press, 1994, p.190-205.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London: Millington, 1974.
- Spoo, Robert. "Uncanny Returns in 'The Dead': Ibsenian Intertexts and the Estranged Infant." In *Joyce: The Return of the Repressed*. Ed. Susan Stanford Friedm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89-113.
- Walzl, Florence L. "Gabriel and Michael: The Conclusion of 'The Dead'." In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Penguin, 1979, p.423-43.

Abstract

“The Dead”: Death, Rebirth, and Women

Moonsook Kim

“The Dead” has both connectedness with and difference from the preceding fourteen stories in *Dubliners*. In other words, this work covers the area of death symbolized by ‘paralysis’ like the other ones, but it also opens the door to the possibility of regaining a new life. Gabriel Conroy is a male protagonist who shows both characteristics.

Gabriel Conroy is one of the typical Dubliners who try to dominate others on the ground of minor differences from them. But he is relinquishing his sense of self-importance and all distinctions of which he has prided himself. And this spiritual development is possible thanks to several women who attempt to break down the barriers of differences by the patriarchal ego he is so deeply implicated in.

Unlike the preceding stories, there appear many women characters in “The Dead”. These women constitute threats to the male protagonist’s shaky feelings of superiority by pointing to the fictitiousness of his superiority. Even though women are generally marginalized in this patriarchal society, they still have the power to recognize and criticize this fictitiousness of hierarchical principles of imperialism and patriarchy.

The British defined the Irish as a feminine race and applied the regulations of a patriarchal society.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is binary thought by the empire was internalized by the colonized Irish. So the political independence alone is not enough to release Ireland from “the spiritual paralysis” rooted in the long-standing colonial situation. That’s why Joyce wants his works to be “a nicely polished looking glass” for his countrymen and attempts to awaken them to a

sense of their own debased condition.

For this reason, we should value Gabriel Conroy's spiritual development from egotism to humanitarianism through struggle with women/others. His swoon at the end of the story seems to be a symbolic death from which he can rise revived. In short, he is the man who seems to be able to change himself and gain "the *ture* spiritual liberation."

■ 주제어 : 허구적 정체성, 남성, 여성, 제국, 식민지, 죽음, 소생